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
		배포일자	2021년 2월 5일(금) 총 2매	
담당 부서	보건환경 연구원	담당자	• 삼산농산물검사소장 주광식 ☎440-5601 • 남촌농수산물검사소장 최은정 ☎440-8514 • 담당자 권성희 ☎440-5602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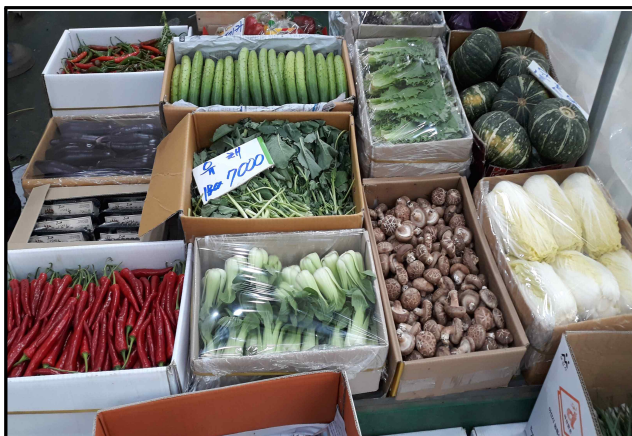
인천시, 설맞이 성수 농산물 안전을 지킨다!

- 시민의 안전·안심 먹거리를 위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(원장 권문주)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및 제수용 농산물에 대해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설 성수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점검은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실시됐으며,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증가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비대면 수거·검사도 병행하였다.
- 특히 설 명절에 소비가 늘어나는 채소류 54건, 과일류 26건, 버섯류 11건, 견과종실류 2건, 향신식물 1건 등 총 94건의 농산물을 수거하여 농약 잔류여부를 검사하였다. 검사 결과, 모든 농산물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

- 한편 지난해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4,500여건의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으며, 이 중에서 기준을 초과한 51건을 가려내어 1,071 kg을 압류·폐기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.
-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설, 추석 등 시기별로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의 집중검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시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” 고 말했다.

관련사진



▲ 채소류



▲ 과일류